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2021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I

베를린市 “올해도 코로나19 대응에 시민들의 동참 당부”
텍사스州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 추진
하와이州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하와이2.0’ 프로젝트 추진

앨버타州 방역과 경제회복 동시 달성 추진
에드먼턴市 인구 등 도시의 빠른 성장에 따른 혁신 도시 설계 추진
캘거리市 원유산업 중심 도시에서 혁신산업도시로의 전환 모색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이수진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이정근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박효택		홍남명
샌디에이고	김민희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시카고	강기향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올랜도	박혜진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하와이	임지연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휴스턴	이경선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에드먼턴	장지훈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토론토	고한나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올해도 코로나19 대응에 시민들의 동참 당부”

독일 베를린시 /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 신년사

시민들이 베를린시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에도 굳건한 연대의식으로 市の 방역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이를 통해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서 2021년 시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베를린다운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베를린시의 코로나19 상황”

- 지난해 우리는 많은 일상의 제약을 수용하면서 새해에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상황임
- 베를린시 종합병원의 상황은 심각함
 - 의료진과 요양기관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도달
-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와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음
 -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청년층 비율도 계속 증가

“市の 백신접종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 필요”

- 市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백신접종시스템 구축
 - 6곳의 백신접종센터 개소
 - 노인과 환자들이 있는 돌봄시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이동 백신접종팀 구성
-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더 중요한 점은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위험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임
 - 백신접종은 현 상황을 개선할 것이지만 그것은 최소 몇 달이 걸림
 - 그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함

“2021년에 굳건한 시민 연대의식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기대”

- 지난해 여름은 시민들의 연대의식과 협조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때였음
-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여정에 동참해 준 기관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자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병원, 요양시설, 약국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경찰, 소방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방역 관련 행정기관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함
-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힘으로 연대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위기를 잘 헤쳐나가서 2021년 시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베를린다운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함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1035426.php>

<https://www.berlin.de/sen/gpg/service/presse/2020/pressemitteilung.1034376.php>

<https://www.berlin.de/aktuelles/berlin/6394990-958092-mobile-impfteams-starten-am-sonntag.html>

유진경 통신원, oyojin@gmail.com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추진

미국 텍사스주 / 그렉 애보트(Greg Abbott) 주지사 / 신년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왔는데, 그 기반이 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향후에도 확대할 예정.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개혁법안의 통과로 교사의 임금을 인상하고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 또한 코로나 19 감염자 치료와 예방,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일자리는 증가
 - 지난 8개월간 연속으로 일자리 증가
 - 2020년 12월에만 6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 텍사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큼
 - 많은 대기업이 텍사스로 기업 기반을 옮기고 있음. 하지만 아직은 10개 기업 중 9개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고용
 - 이에 주정부는 지속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

교육 분야

- 2020년 학교 재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법안이 통과
 - 텍사스주 교사들의 임금 인상
 - 5년 일한 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3천8백 달러 수준이고, 5년 이상 일한 교사의 월 평균 임금은 5천2백 달러 수준임
 -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
 - 인터넷 이용 접근성과 온라인 학습도구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협력
 - 학군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노력
- 2021년에도 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보건 분야

-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 텍사스주는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 지원
 - 24시간 가동되는 정신건강 상담센터를 만들어 정신건강 위기 관련 컨설팅 시행
 - 정신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지난해 약 80억 달러 자금 지원
 - 2021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
- 코로나19 기간 동안 확대된 원격의료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원활한 원격의료를 위한 광대역 접속 지원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delivers-2021-state-of-the-state-address>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하와이2.0’ 프로젝트 추진

미국 하와이주 / 데이비드 이계(David Ige) 주지사 / 신년사

하와이주는 지난해 미국 내에서 가장 적은 수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감염률을 기록했음.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하와이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지난해 총 58만 500명의 근로자가 실직했음. 주정부는 올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방침임. 특히 인터넷 시설 미비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총 7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유치할 계획. 해당 교육 프로젝트는 일명 ‘하와이2.0’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교육과 지역 경제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할 방침임

“코로나19 사태는 관광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과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취약성을 경험하게 한 사건”

-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는 관광업 활성화와 함께 주 기반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함
- 비대면 서비스와 원거리에서 재택근무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급증이 곧 주 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서비스 미비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제고
- 향후 디지털 경제의 도입 및 성공은 주 경제회복의 토대가 될 것임
 - 디지털 경제가 구축된 미래사회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지가 어디인지가 더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하와이 주민들이 전 세계 어느 지역, 국가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의미
 - 이는 또한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피해주민 지원 지속 추진

- 지난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
 - 중산층과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과 소득공제 확대
 -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주민 대상 식당 무료 이용 지원금 총 7,500만 달러 지급
 - 영세한 소규모 상공업체에 2,500만 달러 지원
 - 농어업 관련 업종에 300만 달러 지원

- 영유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영세 보육업체에 1,500만 달러, 그 외 일반 교육기관에 6,100만 달러 지원
 - 비대면 교육 서비스 도입으로 교육격차를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인터넷 시설 미비 지역에 대한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확충 자금으로 3,100만 달러 지원
 - 간호 및 의료업계 종사자에게 추가 근로수당으로 1,400만 달러 지원
 - 그 외 노숙자를 위한 무료 음식 배급소 운영 단체에 500만 달러 지원
- 올해에는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계획
- 州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임대료 지급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위해 총 7,100만 달러 규모의 주거 안정 지원금을 지출
 - 이를 통해 같은 기간 총 1만 3,700가구가 퇴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저렴한 주택 공급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복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올해 1만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2022년까지 3,000세대가 추가로 입주 가능한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
 - 州정부 소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할 계획
 - 올해 내에 지원될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지원금 규모는 총 11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우선적으로 호놀룰루市와 고속도로로 연결된 ‘대니얼 K. 이노우에 국제공항(Daniel K. Inouye International Airport)’ 일대에 저가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건설하고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놓는 데 집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하와이2.0(Hawaii 2.0)’ 프로젝트를 가동

- ‘하와이2.0’ 프로젝트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
- 코로나19 사태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은 계기가 됐음. 이에 ‘하와이2.0’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임
 - 2021년 1월 기준 하와이 주립대학교는 하와이 소재 캠퍼스에서 총 5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비대면 학습을 실시
 -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교육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인터넷 서비스 시설 미비로 인해 교육격차를 겪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예정

- 2021년 1월 현재 총 200명 규모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확충 사업은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활용해 푸나, 카우, 하나, 나나쿨리, 와이안에, 와이마날로, 칼리히, 카파에에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망 설치를 이어가고 있음
- 코로나19는 하와이의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았음. 우리의 중점 과제는 나나쿨리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오아후섬 동부 지역인 카할라에 사는 학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르면 올해 3/4분기에는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2년에는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
-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시행되도록 주민들에게 추진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

<https://www.civilbeat.org/2021/01/iges-state-of-the-state-speech-skips-the-difficult-details/>

<https://governor.hawaii.gov/newsroom/office-of-the-governor-governor-david-iges-2021-state-of-the-state-address/>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방역과 경제회복 동시 달성 추진

캐나다 앨버타주 /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주지사 / 신년사

원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앨버타주는 저유가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잇따른 방역 실패로 이중고를 겪음. 이에 주정부는 공중보건 대책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추진

“의료 전문가와의 이견으로 인한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극복해야”

- 엄격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앨버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했음
 - 의료계에서는 주정부의 대응 지연으로 코로나19 치료 병원 및 중환자실 정원 초과를 초래했다고 비판
 - 주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조치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 일부는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 앨버타주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20년 2월 7.7% 수준이었으나 5월에 15.5%로 급증
 - 2020년 11월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앨버타주의 실업률은 11.1%
 - 11월 기준으로 218억 달러라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
- 방역과 함께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
 -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시험 중인 다수의 백신이 있음

2021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본격 시행

-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2021년 가을로 목표를 정한 집단면역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업과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
 - 유가와 가스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앨버타의 투자유치 능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기대
-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지만, 주정부는 후반기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

- 2020년 6월 인프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계획을 발표한 후 5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
- 다양한 프로젝트 확대 시행
 - 지방자치단체와의 고속도로 건설 협력
 - 농업 부문 성장 프로젝트
 - 북부 주민을 위한 가스 라인 확장
 - 약물중독 회복·치료시설 확대
- 州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행
 - 이의 일환으로 2021년 여름 6억 1,2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해고된 인력을 대상으로 설계
- 일자리 창출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사무소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잠재 투자자에게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주도하는 새로운 州정부 기관인 Investment Alberta를 만들 계획
-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직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연방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인 WDA(Workforce Development Agreement)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실직자를 지원
 - WDA를 통한 지원에는 기술 교육, 실무 교육, 고용주 후원 교육, 재정 지원, 취업 상담 등이 포함
- 기술 및 혁신 부문을 유치하기 위해 혁신 고용 보조금 지급
 - 州정부가 Alberta Enterprise Corporation에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초기 단계 신생기업을 위한 벤처자본 접근성을 확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10%에서 8%로 인하

공중보건 대책에 대한 성찰과 향후 계획

- 잇따른 정책 오류에 대해 사과
 - 2020년 11월 대형 소매점을 필수 사업장으로, 다수의 소규모 소매업체를 비필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정지한 조치에 대해 사과
 - 육류 포장공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일찍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

- 코로나19 및 공중보건 대책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 확대
 - 코로나19 사망자 815명 중 65%가 장기요양시설 또는 생활지원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어벽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
 - 필수 업무를 위한 여행자 및 출장자를 위해 자체격리 호텔 범위를 확장하고 625달러의 긴급지원금을 지급
 -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현장 지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은 지역사회 지원 확대
- 공중보건 지침 준수 당부
 - 휴일과 휴가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으로만 모임을 가지도록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
 -  정부가 가정의 모든 모임 활동을 단속하는 것은 무리. 주민 개개인의 공공보건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

<https://edmontonjournal.com/news/politics/year-in-review-alberta-premier-jason-kenney-optimistic-about-2021-as-we-close-the-books-on-this-terrible-year>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federal-job-retraining-funding-for-albertans-at-risk-of-expiring-1.5964836>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인구 등 도시의 빠른 성장에 따른 혁신 도시 설계 추진

캐나다 에드먼턴시 / 돈 이베슨(Don Iveson) 시장 / 신년사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드먼턴시는 2021년 경기회복을 예상하면서 백만 명 인구규모의 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존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인근 15개 위성도시와 연대하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친환경 관련 사업도 확대 시행

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 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진행 중
 - 2015년부터 저유가 기조로 불황을 겪고 있는 에드먼턴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실업률은 2020년 6월 기준 최고 15.8%를 기록한 후, 12월 기준 10.7% 수준 유지
 - 시 자체 운영시설인 도서관 및 지역 체육시설 소속 수백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시 및 영구적 해고 조치 시행
- 기존의 전통적인 정부 기능의 혁신과 신규 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 추진
 - 인공지능, 물류, 첨단 제조, 건강 혁신, 친환경 건축 기술, 식품 및 농업 기술에 집중
 - 혁신, 예술, 창의성 및 활기찬 도시 생활이 교차하는 장소인 다운타운을 대상으로 북쪽의 지역 기술전문대학에서부터 도심을 거쳐 남쪽의 앨버타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중단 혁신 통로'를 구축
 -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을 통합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소상공인의 사업등록면허세 감세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고용을 증대

에드먼턴을 중심으로 한 주변 15개 지자체의 지역협력 증대

- 2017년 말 인근 15개 위성도시와의 지역협력 사업인 에드먼턴 글로벌(Edmonton Global) 사업을 시작
 - 야심 차게 시작한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동력을 잃어 현재까지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협력 개발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음
 - 이에 모든 주변 지자체가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

- 인근 위성도시에 산업시설이 유치되면 통근 근로자를 위한 더 나은 교통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다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노동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대중교통 시스템과 경전철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선결 과제

인구규모 등 도시의 빠른 성장에 따른 혁신 도시 설계

- 도시의 빠른 성장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오래된 마을의 주요 환승 경로 및 주요 고용센터 인근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젊은 층과 노년층을 위한 보다 저렴한 소규모 주거지 건설 추진
 - 대중교통 시스템 정비 및 광역 교통망 신설
 -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대중교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혼잡 경로 개선 등 교통 효율성 증대
 - 서부 지역 경전철 확대
 - 인본주의 기반의 도시설계
 - 보도 확장 및 주요 보행로 구역의 차로 폭 축소
 - 자전거 네트워크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40km/h로 확정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 12세 이하 누구에게나 무료 환승 제공
 - 신규 학교 건립 계획 및 학교 폐쇄 및 통합에 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교육청과 공유하고, 특히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계획 추진
 - 저렴한 조기학습 및 보육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 경주
 - 빈곤 및 차별을 겪고 있는 계층 지원
 -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 데 역량을 투입
 - 차별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및 기타 차별에 대응
 - 캐나다 원주민과의 상생과 화해를 위한 노력 경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 전기버스를 신속하게 확충
 - 건물주 및 사업주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도록 자금 지원

- 친환경 커뮤니티 시범지구인 블래치포드(Blatchford)를 완성
 - 캐나다 '친환경 주거'의 대표도시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
 - 블래치포드 지역과 연대하여 건물 간 난방 및 냉방 부하를 공유하고, 폐열을 회수하며, 효율적인 열병합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축 및 개조된 건물에 효과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

<https://edmonton.ctvnews.ca/the-pandemic-politics-and-camp-pekiwewin-don-iveson-reflects-on-2020-in-edmonton-1.5249163?cache=yes%3Fautoplay%3Dtrue>

<https://edmonton.taproot.news/stories/2020/mayor-don-iveson-reflects-on-2020>

<https://doniveson.ca/>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원유산업 중심 도시에서 혁신산업도시로의 전환 모색

캐나다 캘거리市 / 내히드 넌쉬(Naheed Nenshi) 시장 / 신년사

캐나다 원유산업의 중심지인 캘거리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하락이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혁신산업 유치 및 지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탈바꿈을 꾀하고 있음. 2021년에도 코로나 19에 대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 진행 중
 - 2021년 1월 기준 캘거리의 실업률은 12%로, 북미 대도시 중 최고 수준
 - 도심의 상업시설 공실률은 25% 수준
 - 레스토랑, 바, 세탁소, 개인 서비스업 등은 2020년에 큰 타격을 입어 다수 업체가 폐업
-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 지원
 - 2020년 11월 세율 조정을 통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 시행
 - 이 감면 조치에서 제외된 상업시설의 경우 市는 세액 증가분에 대해 10%의 상한선을 뒤 시민 부담 경감
 - 소상공인의 등록면허세 감세로 지역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고용 증대를 추진, 공과금과 재산세를 무이자 조건으로 납부기한 연장

원유 의존 산업 중심 도시에서 혁신기술도시로의 탈바꿈 추진

-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관련 산업에 市의 역량을 투입
- 또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서비스, 농식품 등 핵심 산업에 집중
-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산업 및 인력 전환을 지원
 - 전통 양조장이 손 소독제를 만드는 사업체로 전환한 경우와 해고된 석유 및 가스 산업 노동자가 칵테일 믹스 회사를 창업한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 혁신기업의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 확대
 - 캘거리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인 베네비티(Benevity)는 2020년 영국의 민간회사로부터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 이 회사는 '사회적 책임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로, 고객사인 다국적기업이 자선단체 혹은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상호 연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공중보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 코로나19 2, 3차 유행에 대한 대응과 백신접종
 - 2020년 12월 감염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백신접종이 실시될 때까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
 - 백신접종 지연과 재유행 대비를 위해 모든 시민 대상으로 연중 마스크 착용 고지
-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계획
 - 2020년 1, 2차 대유행 시 앨버타 州정부에 강력하고 빠른 대응을 요구한 바 있음
 - 市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약속
- 경제회복을 위한 기존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
 - 캘거리의 역점 사업인 동부 종단 경전철 그린라인 프로젝트는 州정부의 사전 검토로 3개월 동안 지연
 - 캘거리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인 그린라인은 연방정부, 앨버타 州정부, 캘거리市가 49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함
 - 2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성 확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진행이 중지된 Jack Singer Concert Hall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
 - 저렴한 주택 보급을 위해 1,500만 달러 투자
 - 캘거리의 새로운 '이벤트센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인근 컨벤션센터와 함께 캐나다에서 가장 큰 컨벤션단지를 조성

기존 중장기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 이른바 '차세대 계획'(Next Gen)으로 불리는 캘거리市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은 지난 10년간 주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메인 스트리트를 건설하는 등 주택, 교통, 편의시설 측면에서 성과를 거둠
- 9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차세대 계획은 市 개발계획 및 캘거리 교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임
 - 200만 인구를 위한 도시계획
 - 사람과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계획

- 지역사회 개발 및 성장계획
 -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개발계획
 - 캘거리 과거 보존계획
 - 기존 및 신규 산업 커뮤니티 성장 지원
 - 성장자금 지원
 - 24개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유치
 -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 경기침체로 약화된 성장동력을 재정비하여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

<https://livewirecalgary.com/2020/12/21/it-really-is-the-perfect-storm-mayor-nenshi-on-calgarys-economy/>
<https://globalnews.ca/news/7525891/calgary-mayor-naheed-nenshi-2020-year-review/>
<https://livewirecalgary.com/2020/12/17/we-could-have-prepped-people-a-little-better-mayor-nenshi-year-ender-part-1/>
<https://livewirecalgary.com/2020/12/21/it-really-is-the-perfect-storm-mayor-nenshi-on-calgarys-economy/>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02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4월 26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